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 도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 For Urban Husbands and Wives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高甫瑄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Koh, Ko Sun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任貞彬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Im, Jeong Bin

목 차

I. 서 론
II. 선행연구고찰
III. 연구설계 및 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study is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husbands and wives' family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husbands and wives in Seoul. Eligibility was limited to family units with husband, wife, and at least one child. 852(Husbands : 432, Wives : 420) out of 1200respondents were finally selected as datum source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Oneway-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

1) In regard to the perception of family income adequacy, wives' perception was higher than husbands'. On the family financial problem, husbands has more experienced the financial problem than wives.

2) Marriage duration, family income, husbands and wives' education, and savings effecte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And husbands are more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than wives.

3) Determined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security on the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was 41% for wives and 33% for husbands, respectivel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정생활의 질 만족은 가정생활의 주요관심영역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인지와 관련된다. 가정생활의 질에 대하여 만족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만족도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경제안정도는 생활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크며(Andrew & Withey, 1974; Davis & Helmick, 1981), 이는 주관적 가계복지와 맥을 같이하는 개념으로서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가정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Metzen등, 1980; Davis & Helmick, 1983)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관적 가계복지는 하위영역으로서 가계소득적 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들수 있으며, 이 두 변수들은 서로 조합이 가능하다(Yuen, 19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 두 하위영역을 조합하여 기혼 여성과 남성이 각각 인지한 가정경제안정도를 측정하고,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바 있는 소득, 직업 위세등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을 기혼여성과 남성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도"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하위변인으로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놓고 이들을 조합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주로 객관적 요인이 아닌 주관적 인지와 경험빈도가 생활의 질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생활의 질의 개념과 생활영역

1) 생활의 질의 개념

생활의 질 개념은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 시간,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Liu, 1975), 학문분야와 학자들의 연구관점, 그리고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특히, 가정학 분야에서의 생활의 질에 대한 개념을 보면, 주관적인 만족에 우선을 둔 연구(Katona, 1973; 객인숙, 1986)와 물질적, 객관적 생활조건과 심리적, 주관적인 만족 모두를 강조한 연구가 있다(Metzen등, 1980; 소연경, 1982; 이기영, 1984; 김민정, 1984; 정은숙, 1985).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질 개념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적, 사회심리적 환경조건과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한 정의적 또는 인지적 평가에 의해 갖게 되는 주관적, 심리적 만족으로 본다.

2) 생활의 질과 생활영역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과 가정학에서 관심을 갖는 생활영역을 개인적 측면, 가정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사회학 분야에서의 생활영역 중 개인적 측면은 개인적 지위, 개인적 평등, 건강과 수명, 고용, 교육, 친구관계, 여가 및 오락, 사회적 지위, 개인적 특성과 자아감각 등을 포함한다. 가정적 측면은 주택 및 환경, 이웃 및 친족관계, 재정상태, 결혼과 자녀양육, 가사일, 가정생활, 주거지역, 재화와 용역, 생활조건, 경제적 지위, 이웃의 질과 프라이버시 등이다. 사회적 측면은 기술발전, 보건 및 복지, 교육발전과 교육시설 및 기회, 취업기회 및 작업환경, 보수, 지역사회 서비스 및 환경, 생활편이시설, 도로와 통행로, 공공안전과 법적정의, 쓰레기 처리, 환경 및 교통, 인권, 인구, 전쟁의 불안,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이다(Liu, 1975; Campbell등, 1976; Mammn & Dillman, 1980; O.M.B., 1972;

Andrews & Withey, 1974 ; 김경동 등, 1982 ; 신도철, 1982 ; 하재구, 1986).

한편 가정학 분야에서의 생활영역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강, 마음의 평화, 취업, 개인적 지위, 개인적 평등, 교육, 장애에 대한 희망, 여가 및 오락, 종교, 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적 측면에서는 생활수준, 자식들에 대한 기대성취, 자녀교육, 행복한 가정생활, 가족건강, 주택소유, 재정안정, 적절한 의·식·주와 소득, 모자보건, 가족관계, 관리, 주거지관계 및 주거환경, 이웃관계, 의사소통의 질과 의사결정합치도, 가사일, 가정용품 및 주거시설 편이도 등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건 및 복지, 가족과 사회복지, 취업기회, 지역사회환경 및 서비스, 기술적 변화, 경제성장, 공해, 인구, 정치적인 불안정 및 불안감, 범죄, 세계평화 등이다(Peck & Stewart, 1985 ; Cantril & Roll, 1964 ; Mammn 등, 1981 ; Berry 등, 1987 ; Wilson, 1973 ; Wallace, 1974 ; 소연경, 1982 ; 정은숙, 1985 ; 이기영, 1984 ; 한경미 · 황덕순, 1990).

이상에서 살펴보면, 사회학 분야는 가정학 분야의 생활영역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 개인적 특성과 자아감각, 재화와 용역, 이웃간의 프라이버시, 인권, 전쟁의 불안, 생활의 편이시설, 교육시설 및 기회, 가로와 통행로, 공공안전과 법적정의, 교통, 쓰레기처리, 근로환경, 그리고 보수 등 광범위한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학 분야의 생활영역의 대상범위는 주택소유, 적절한 의식주와 소득, 가족관계, 재정안정, 주거지관계, 주거시설 편이도, 의사소통의 질, 그리고 의사결정 합치도 등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면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가지 측면의 생활영역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생활영역을 설정하였다. 즉 1) 식생활 2) 건강 3) 교육 4) 주거환경 5) 가족관계 6) 가사노동환경 7) 여가생활 8) 경제생활 9) 친구 및 이웃관계 10) 지역사회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자 한다.

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관련변수

1)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개념

인지란 인간이 주위의 조건과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것은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좌우되며,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태도등에 비추어 자극을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그 가계소득적정도와 가정경제문제경험을 주관적으로 평가, 해석하는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상태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Yuen(1979)은 가계복지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계복지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여, 가계복지를 가계소득적정도인지의 개념과 경제문제인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가계소득적정도인지는 경제문제인지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개념이 유사한 요인집단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하였다(Williams, Nall & Deck, 1976).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경제문제인지는 실증적으로 불때도 역시 단일변수로 조합될 수 있고, 실제로 소득적정도인지와 재정문제의 심각성과의 관계연구에서, 재정문제를 심하게 인지할수록 소득을 덜 적절하게 인지하여(Williams, 1976), 이 두 변수를 주관적 경제복지의 한 척도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란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조합한 것으로서, 가계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인지라고 정의한다.

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관련변수

(1) 가계소득적정도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계소득은 소득적정도인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 그리고 경제복지와 의미있는 관계있음을 밝힌바 있다(Campbell 등, 1976 ; Hafstrom & Dunsing, 1976 ; 이기영, 1984).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교육수준이 의미있는 정적관계가 있음을 밝힌연구(Williams, 1976 ; 임정, 1988)와 주부의 교육수준과 도시가계의 경제문제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Williams, Nall & Deck, 1976),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 연구방법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직업은 소득

액수뿐만 아니라 소득의 정규성과 관련되며(Nickell & Dorsey, 1959), 가계소득적정도인지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 가계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어 가계소득을 높게 인지하며, 부부의 직업이 전문기술적인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보다 적절하게 소득을 인지한다고 하였다(Williams, 1976). 이는 주부의 취업동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는 주부는 경제적인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취업하는 주부보다 가계소득을 덜 적절하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결혼지속년수는 가정생활주기와 관련있으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수요에 차이가 생기므로(Gross 등, 1973; 서병숙, 1984), 가계소득이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가족은 가계소득을 부적절하게 느끼게 된다.

(2)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일반적으로 경제문제는 소득에 대한 수요가 화폐공급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체적으로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가족의 소비행동이 비합리적일때(김영숙, 1983), 가정생활주기단계에 따라, 그리고 주부의 가계재정관리능력부족(Deacon & Firebaugh, 1981; 임정빈, 1987)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가계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들었을 때, 가족구성원의 질병, 예기치 않은 현금이 필요하여 갑자기 지출이 생길 때, 자녀교육, 그리고 주택마련 등 미래욕구나 예상했던 요구에 의해 비교적 큰 재정지출이 생길 때 재정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Fitzsimmons & Williams, 1973). 가정의 경제문제경험빈도는 가계복지에 가장 설명력있는 변수이며, 소득지표와는 부적상관이 있다(Yuen, 1976; Williams, 1976; 임정, 1988). 또한 복지측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문제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며(Williams 등, 1976), 부부관계갈등의 원인(Berry & Williams, 1987)과 여성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배영숙, 1982)는 보고도 있다.

가계소득이 가정의 경제문제경험빈도에 의미있

는 관계가 있으며(Williams, Nall & Deck, 1976),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소득의 확실성과 규칙성이 강조되고 있다(Williams 등, 1976; Nickell 등, 1976). 주부의 교육수준(Williams & Bery, 1984)과 주부의 취업여부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에 영향을 주며(Berger, 1984; 김민정, 1984), 가정생활주기 중 특히 자녀교육기에 속하는 가정에서 경제문제를 가장 자주 경험한다는 보고(Williams 등, 1976; 서병숙, 1980)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남성의 직업, 여성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그리고 가계저축액등을 통하여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3.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많은 연구들이 생활의 질에 있어서 재정안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의 질 만족에 대한 경제복지 또는 재정복지의 영향력은 남편의 경우보다 아내의 경우에 더 많이 설명한다고 하였다(Mammen 등, 1983). Davis 와 Helmick(1983)는 부에 대한 만족, 재정상의 안정에 대한 만족, 그리고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을 반영하는 구성척도를 이용하여 재정상의 안정에 대한 만족은 과거 5년에 걸친 경제조건의 변화, 순자산, 그리고 소득의 규칙성등과 정적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한편, Rudd(1981)는 소득과 저축이 소득적정도인지, 소득만족, 소비만족, 비상시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만족, 그리고 생활수준만족등과 정적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Hafstrom(1986)은 소득과 저축이 관련된 재정안정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이 생활의 질 만족과 중요하게 관련되었음을 밝히고 생활의 질 연구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역시 경제적 생활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바 있다(이기영, 1984; 정은숙, 1986; 김숙이, 1988; 임정, 1988). 이외에 생활수준만족도, 가정용품 및 시설편이도, 경제안정성취도의 순으로 생

활의 질에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기영, 1984).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가정의 인적·비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저자원의 공급 등의 복지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정은숙, 1988), 복지의 측면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복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김숙이, 19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경제안정은 가정생활의 질의 주요변수이다. 그러나, 가족원 각자의 다양한 욕구, 만족수준, 그리고 가정내의 역할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가족원 각자가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가정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의 두 하위영역을 조합하여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측정하고, 10개의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하여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정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일 연구로서, 기혼여성과 남성 각이 주관적, 심리적으로 인지, 평가하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하위변수로 설정하고,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그 가정의 주관적인 가계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의 일반적 경향과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와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정경제안정도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사도구의 작성

1) 가계소득적정도인지척도

Campbell등(1976)의 만족·불만족 7점척도, 이기영(1984)의 상대적박탈감, 열망, 그리고 기대척도, 김민정(1984)과 임정(1988)의 가계소득적정도인지척도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고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11개 문항중 10개 문항의 내용에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정말 그렇다”에 5점, “절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필수품구입정도를 묻는 1개 문항은 미국 NC-90 연구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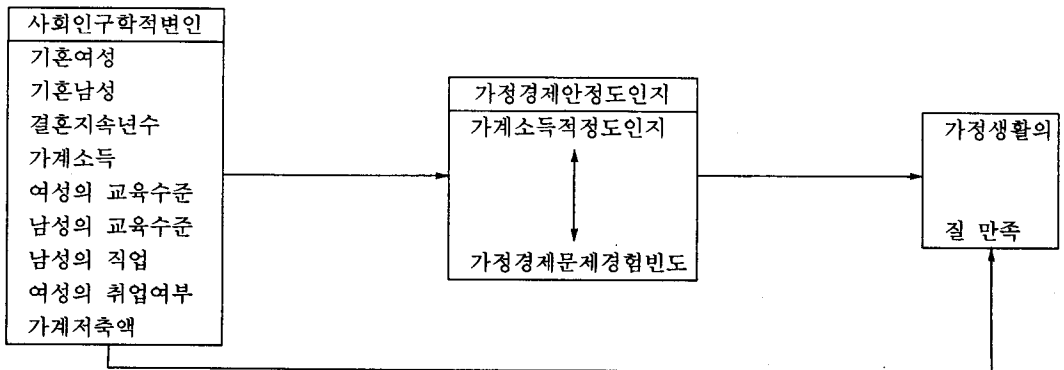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젝트인 “빈곤가계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요인”에서 질문하였던 문항으로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에도 부족하다”에 1점,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도 저축할 수 있다”에 5점을 주었다. 또한 11개 문항중 부정질문문항(질문지 1-3, 5, 7번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 1점, “절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주었다. 5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가계소득적정도인지 점수는 최소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을 높게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척도

미국 NC-90연구 프로젝트인 “빈곤가계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요인”의 종속변인중 하나인 경제문제척도를 이기춘(1983)의 가계지출비목분류를 근거로 세분화시킨 임정(1988)의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음식물비 3문항, 주거비, 의복비, 자녀교육비 2문항, 보건·위생비, 광열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제비, 공과비, 예비비 각 1문항으로 총 16문항을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항상 경험한다”에 1점,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에 5점을 주었으며, 16개 문항을 11개의 변인으로 조합하여 만든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 점수는 최소 11점에서 최고 5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정경제문제를 자주 경험함을 나타낸다.

3) 가정경제안정도인지척도

Yuen(1976)의 가계복지인지 개념을 근거로 하여 가계소득적정도인지척도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척도를 조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가계소득적정도인지척도는 11개 문항을 5개 문항으로 조합하고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척도는 16개 문항을 11개 문항으로 조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두 하위 변수를 조합하기 위하여 가계소득적정도인지점수에 2.2를 곱하여 가중치를 줌으로써,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최소 22점에서 최고 110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함을 나타낸다. 가계소득적정도인지척도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척도의 신뢰도는 크롬바하 α 가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86, .94와 .86,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4) 가정생활의 질 만족척도

Campbell등(1976)의 만족·불만족 7점척도를 5점 Likert형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은 10개의 가정생활영역에 대하여 각 2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생활의 질 만족정도는 5점 Likert방식으로 “매우 불만족”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주어, 최소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분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음을 나타낸다. 가정생활의 질 만족척도의 신뢰도는 크롬바하의 α 가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88과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기간 및 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1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기혼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및 취업여부, 결혼지속년수, 가계소득등을 고려하여 유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1200부(여성과 남성 각각 6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878부(여성 : 431, 남성 : 447)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에 가능한 852부(여성 : 420부, 남성 : 43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포, 백분율 및 평균,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그리고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혼여성의 연령과 기혼남성의 연령모두 31~50세가 89%와 8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평균 가족원수는 기혼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4.6명이었으며, 소득원이 2명이상인 경우는 기혼여성의 경우 40%, 기혼남성의 경우 30%로 대부분 주소득원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였다. 기혼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인 80%와 83%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두 집단 모두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다. 기혼여성의 배우자의 직업과 남성 자신의 직업 모두 상공자영업이 32%와 2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 전업주부가 64%와 75%로 대부분이었으며, 취업여성의 직업분포를 보면, 기혼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19%와 13%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14%와 6.5%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지속년수는 기혼여성과 남성의 경우 9~19년이 65%와 67%로 가정생활주기의 자녀교육기에 속하고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기혼여성과 남성의 경우, 91만원 이상인 경우가 각각 70%, 67%로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43,300원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대상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가계저축액은 가계소득과 관련되어 유사하게 분포되어, 21만원 이상이 기혼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66%, 61%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가정경제안정도인지

1) 변수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결혼년수에 따른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정경제안정도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가정생활주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결혼년수가 13년 이하일 때는 어느정도 높게 인지하다가 14~23년 즉, 자녀의 중등교육기, 대학교육기에 들어서서는 낮아지고, 24년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도를 높게 인지하여 U자형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상 14~23년은 특히 가계소득 중 자녀교육비, 주택확장등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에따라 가계소득을 덜 적절하게 인지하게되고 가정경제문제를 많이 경험하여 결국,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낮아진 것

이라 볼 수 있다.

가계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에 가계소득에 대하여 더 적절하게 인지하며, 이에따라 경제문제를 덜 경험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가정경제안정도를 보이는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가정경제안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남성의 직업에 따른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이 전문기술직일때 가장 높았으며, 이는 교육수준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본다. 즉 전문직에 종사할 때 높은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보였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위영역인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통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소득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다른가족(주로 아내)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는 가계소득을 덜 적절하게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계저축액은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가계소득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즉 가계소득이 많은 가정은 그 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가정경제문제를 덜 경험하고 경제적, 심리적 안정도 인지가 높다고 사료된다.

2) 기혼여성과 남성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계소득적정도인지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계소득적정도인지의 하위변수는 가계소득수준의 상대적 안정성($P < .05$)으로 나타났다(표 2).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가계소득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표 1.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가정경제안정도인지

변 인	구 분	가정경제안정도		변 인	구 분	가정경제안정도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결혼지속 년 수	8년이하	75.92	68.24	남성의 직업	전문기술직	77.82	67.88
	9~13년	74.56	72.35		경영관리직	77.19	78.34
	14~19년	69.77	67.81		사무직	68.30	69.05
	20~23년	64.05	68.81		상공자영업	73.50	70.54
	24~30년	74.04	71.62		자유업	69.40	75.54
	31년이상	79.58	73.12		판매서비스직		
	F 비	4.21**	1.23		기능·노무직	63.49	59.64
	(258)	(307)	F 비	6.59***	11.16***		
			(269)	(303)			
가계소득	50만원이하	59.89	58.16	여성의 취업여부	취업	71.00	68.19
	51~90만원	63.31	59.61		비취업	72.13	70.34
	91~120만원	66.12	67.71		T 값	- .62	1.06
	121~160만원	75.34	75.56		(287)	(308)	
	161~200만원	76.29	79.82	가계저축액	10만원이하	58.35	59.82
	201~300만원	84.30	81.38		11~20만원	68.04	63.53
	301만원이상	85.54	88.83		21~50만원	72.83	69.94
F 비	18.20***	28.49***	51~70만원		74.27	78.91	
(283)	(283)	71~100만원	81.12		86.06		
여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66.16	63.03	101만원이상	84.12	86.06	
	고졸	71.09	71.90	F 비	18.27***	23.22***	
	대졸이상	78.89	76.91	(280)	(294)		
	F 비	15.07***	18.93***				
	(281)	(302)					
남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64.02	59.67				
	고졸	69.73	70.14				
	대졸이상	76.32	74.10				
	F 비	12.99***	17.06***				
	(272)	(302)					

** : p<.01, *** : p<.001

우려를 하고 있고, 여성은 주어진 한도의 소득을 가지고 적절히 계획하여 가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가계소득이 적정하다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에서는 가계지출비목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보건·위생비(P<.05), 공과비(P<.001), 그리고 예비비(P<.05)에 대하여 경제문제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보험시행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의료비에 정기적인 지출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공과비 납부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나, 공

과비 지원을 하는 주소득원인 남성이 느끼는 각종 공과비에 대한 부담은 크며, 특히 예비비는 남성에게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가계지출비목이라고 할 수 있어, 노후대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가정의 성장, 확대됨에 따른 주거확장비, 가정설비비용등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 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이 지출비목에 대하여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사료된다.

2.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가정생활의 질 만족

표 2. 여성과 남성의 가정경제안정도

변 인	여 성		남 성		T 값
	평 균	사례수	평 균	사례수	
가정경제안정도인지	71.73	287	69.85	308	1.54
1. 가계소득적정도인지	16.22	311	15.72	327	1.76*
가계소득적정도인지수준	3.20	395	3.13	420	1.27
가계소득수준향상감	3.54	419	3.44	431	1.27
가계소득수준기대감	3.56	418	3.52	431	.55
가계소득수준상대적안정성	2.75	419	2.62	430	1.72*
생활필수품구매정도	2.96	337	2.91	335	.87
2.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	35.57	377	35.56	397	.34
음식물비	3.30	400	3.31	416	-.15
주거비	2.79	411	2.85	416	-.76
의복비	2.70	417	2.78	431	-1.21
자녀교육비	3.51	406	3.44	421	.93
광열비	2.89	415	2.91	430	-.25
보건·위생비	3.82	418	3.68	431	1.94*
교양·오락비	2.69	417	2.75	429	-.71
교통·통신비	3.60	415	3.62	431	-.28
교제비	3.08	419	3.10	430	-.31
공과비	4.05	418	3.86	432	2.82***
예비비	3.10	416	2.95	429	1.87*

*p<.05 **p<.01 *** : p<.001

1) 생활영역별 가정생활의 질 만족(표 3)

(1) 식생활

여성의 경우는 결혼지속년수가 14~23년에 식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함을 보이는데, 이 시기는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이며 자녀교육비, 주거확장비등 자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이므로 만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으면 질적인 식단계획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며,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 역시 교육수준과 정적상관이 있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더 만족이 클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가계저축액수가 많을수록 만족하였으나,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 일관성있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본인의 직업이 경영관리직과 사무직등 전문직에 종사할 때, 그리고 가계소득과 가계저축액이 많을 때, 식생활에 대하여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관계

여성의 경우는, 결혼지속년수가 24년 이후 일때 만족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대부분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U자형의 만족도를 보인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자녀의 정신적,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과 남편의 사회생활의 확대 등으로 인해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나, 남편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감소등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본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때 만족도가 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사소통의 기술개발등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표 3.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생활영역별 가정생활의 질 만족

변인	구분	식생활		가족관계		경제생활		여가생활		주거환경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결혼지속 년 수	8년이하	6.56	6.72	7.15	6.95	6.19	6.00	5.17	5.56	5.58	5.36
	9~13년	6.58	6.71	7.17	7.41	6.06	6.03	5.73	5.63	6.25	5.80
	14~19년	6.55	6.55	7.04	7.10	5.61	5.67	5.36	5.40	5.51	5.71
	20~23년	5.59	6.42	6.52	6.36	5.12	5.23	4.88	4.98	5.64	5.80
	24~30년	6.17	6.73	6.31	6.64	5.78	5.87	5.77	5.83	6.30	6.58
	31년이상	6.23	6.81	6.23	6.56	6.00	6.50	5.38	5.87	6.92	7.06
	F 비	3.30** (407)	.37 (430)	2.88* (410)	3.55** (424)	2.54* (411)	2.33* (424)	1.70 (408)	1.39 (426)	3.09** (413)	2.42* (426)
가계소득	50만원이하	6.13	6.10	6.82	6.48	4.43	4.85	4.93	5.37	4.50	5.51
	51~90만원	6.12	6.19	6.83	6.78	4.72	4.78	5.10	4.88	5.38	5.21
	91~120만원	6.15	6.37	6.72	7.00	5.62	5.72	5.26	5.20	5.86	5.67
	121~160만원	6.33	7.00	7.11	7.36	5.90	6.13	5.42	5.65	5.61	6.33
	161~200만원	6.60	7.20	7.12	7.38	6.30	6.73	5.72	6.20	6.37	6.76
	201~300만원	7.04	7.17	7.30	7.41	7.17	6.75	5.95	6.55	7.06	6.86
	301만원이상	6.88	7.23	6.32	6.52	7.40	7.28	6.20	6.38	7.04	7.14
F 비	2.47* (401)	4.73*** (417)	1.36 (395)	2.10* (412)	19.80*** (396)	17.38*** (412)	2.15* (394)	6.11*** (414)	8.51*** (397)	8.26*** (414)	
여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95	6.21	6.66	6.57	5.00	5.35	4.80	4.73	5.16	5.61
	고 졸	6.51	6.71	6.92	7.11	5.80	5.79	5.50	5.59	6.00	6.08
	대졸이상	6.73	7.17	7.32	7.62	6.62	6.64	6.08	6.63	6.62	6.63
	F 비	6.81** (408)	8.07*** (425)	3.92* (402)	9.06*** (419)	22.68*** (403)	13.02*** (419)	11.43*** (399)	25.01*** (421)	14.62*** (404)	12.60*** (421)
남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95	6.21	6.66	6.57	5.00	5.35	4.80	4.73	5.16	5.61
	고 졸	6.50	6.58	6.97	7.04	5.58	5.71	5.36	5.44	5.85	5.92
	대졸이상	6.56	6.86	7.09	7.32	6.25	6.19	5.85	6.01	6.31	6.36
	F 비	4.98** (393)	3.80*** (425)	3.27* (390)	7.09*** (419)	12.46*** (389)	8.84*** (419)	8.14*** (384)	14.11*** (421)	14.49*** (389)	13.05*** (421)
남성의 직업	전문 기술 직	6.82	6.84	7.02	7.46	6.84	5.80	5.89	5.78	6.69	6.12
	경영관리직	6.50	7.14	7.27	7.18	6.25	6.66	5.85	6.12	6.53	6.73
	사무 직	6.23	6.64	6.94	7.13	5.53	5.67	5.65	5.51	5.71	5.96
	상공자영업	6.47	6.62	6.77	7.00	5.80	5.82	5.30	5.42	5.77	6.05
	자유업	6.31	6.53	7.50	7.00	5.25	5.78	5.25	5.86	5.31	5.06
	판매서비스직										
	기능·노무직	6.03	5.95	6.55	6.59	5.09	5.10	4.73	4.73	4.94	4.60
F 비	1.36 (389)	4.34*** (423)	1.62 (386)	1.62 (417)	6.15*** (385)	7.89*** (417)	2.75* (380)	4.77*** (419)	5.47*** (385)	9.46*** (419)	
여성의 취업여부	취업	6.18	6.49	6.63	6.85	5.71	5.57	4.84	5.02	5.68	5.73
	비취업	6.50	6.66	7.07	7.07	5.86	5.76	5.65	5.97	5.92	5.92
	T 값	-1.89 (418)	-.91 (431)	-2.46* (411)	-1.11 (425)	-.31 (412)	-1.48 (425)	-4.66*** (409)	-2.96** (427)	-1.36*** (414)	-.76 (427)
가계저축액	10만원이하	5.79	5.84	6.95	6.66	4.36	4.74	4.95	5.13	5.06	5.07
	11~20만원	6.26	6.26	6.89	7.12	5.37	5.34	5.41	5.18	5.40	5.74
	21~50만원	6.40	6.83	6.81	7.17	5.81	5.95	5.57	5.44	6.13	5.76
	51~70만원	6.50	7.00	7.14	6.96	6.10	6.20	5.37	5.59	5.82	6.17
	71~100만원	7.16	6.68	6.70	6.82	6.67	6.74	5.63	6.14	6.55	6.52
	101만원이상	6.74	7.55	7.05	7.41	7.52	7.13	5.88	6.65	7.19	6.92
	F 비	3.94** (395)	6.77*** (404)	.50 (389)	1.17 (399)	21.11*** (390)	14.27*** (399)	1.36 (388)	4.02** (401)	7.48*** (391)	3.95*** (401)

高甫瑄 · 任貞彬 :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변인	구분	건강		가사노동환경		교육		친구 및 이웃관계		지역사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결혼지속 년 수	8년이하	6.37	7.00	5.80	6.16	6.03	6.80	6.85	6.84	4.72	5.72
	9~13년	6.39	6.70	6.53	6.43	5.78	5.85	6.93	7.09	5.28	5.08
	14~19년	6.31	6.66	6.06	6.20	5.30	5.73	7.14	6.98	5.10	5.24
	20~23년	6.28	6.71	5.88	6.25	5.01	5.40	6.76	6.50	4.92	5.41
	24~30년	6.04	6.73	6.13	6.61	5.65	5.73	7.08	6.83	5.30	5.44
	31년이상	5.38	5.81	7.70	6.50	6.00	6.50	7.23	7.12	5.38	6.00
	F 비	.78 (413)	.78 (430)	1.88 (416)	.47 (426)	2.81* (412)	2.33* (425)	.74 (409)	1.05 (426)	.84 (413)	1.25 (428)
가계소득	50만원이하	6.33	6.27	5.03	5.55	4.80	5.62	6.93	6.58	5.06	5.17
	51~90만원	6.09	6.67	5.63	5.74	5.15	5.19	6.96	6.85	5.15	5.02
	91~120만원	6.38	6.50	6.38	6.23	5.54	5.51	6.89	6.75	5.07	5.26
	121~160만원	6.18	6.58	6.15	6.80	5.47	6.50	6.69	6.83	4.91	5.44
	161~200만원	6.31	6.84	6.40	6.62	5.94	6.22	7.45	7.38	5.12	5.47
	201~300만원	6.36	7.37	7.02	7.17	6.31	6.58	7.23	7.44	5.34	5.34
	301만원이상	5.76	6.38	7.28	7.28	5.72	6.52	7.00	6.90	5.32	5.66
	F 비	.47 (398)	1.12*** (417)	6.03* (401)	5.20*** (414)	3.64** (397)	5.81** (414)	1.67 (394)	1.61 (413)	.33 (397)	.73 (415)
여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6.09	6.61	5.63	5.76	4.51	4.75	7.30	6.71	5.02	5.08
	고졸	6.26	6.29	6.28	6.45	5.62	5.98	7.06	7.02	5.15	5.30
	대졸이상	6.59	7.10	6.83	6.97	6.69	7.33	6.79	7.13	5.17	5.68
	F 비	1.79 (404)	1.91 (425)	10.58*** (408)	9.84*** (421)	49.91*** (404)	53.34*** (420)	1.16 (400)	1.94 (421)	.24 (404)	2.58 (423)
남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6.07	6.41	5.54	5.62	4.13	4.53	7.11	6.73	4.84	5.12
	고졸	6.27	6.75	6.00	6.26	5.38	5.49	7.13	6.97	5.08	5.20
	대졸이상	6.42	6.71	6.69	6.74	6.23	6.89	6.85	7.01	5.16	5.51
	F 비	.73 (391)	.83 (425)	9.85*** (393)	8.19*** (421)	37.97*** (390)	54.00*** (420)	1.70 (386)	.72 (421)	.64 (390)	1.71 (423)
남성의 직업	전문기술직	6.79	6.56	7.12	6.34	6.92	6.84	7.07	6.71	5.76	5.50
	경영관리직	6.18	6.28	6.98	7.10	5.66	6.64	6.86	7.07	5.41	5.20
	사무직	6.37	7.20	6.13	6.43	5.73	5.95	6.94	7.07	4.87	5.47
	상공자영업	6.06	6.90	6.00	6.37	5.20	5.51	6.99	7.14	4.97	5.41
	자유업	6.56	6.26	6.06	5.66	5.75	5.78	6.66	6.40	4.68	4.85
	판매서비스직										
	기능·노무직	6.18	6.19	5.33	5.58	5.09	4.93	7.31	6.47	4.80	4.89
	F 비	1.08 (387)	3.57** (423)	6.69*** (389)	4.92*** (419)	7.61*** (387)	9.81*** (418)	.81 (382)	2.39* (419)	2.38* (386)	1.44 (421)
여성의 취업여부	취업	6.24	6.85	5.79	6.02	5.37	5.43	6.81	6.86	5.21	5.38
	비취업	6.29	6.62	6.40	6.43	5.61	5.94	7.12	6.96	5.08	5.27
	T 값	-.30 (414)	1.08 (431)	-3.09** (417)	-1.90 (427)	-1.29 (413)	-2.41* (426)	-2.02* (410)	-.55 (427)	.71 (414)	-.57 (429)
가계저축액	10만원이하	6.24	6.14	5.59	5.60	5.17	5.46	6.89	6.49	4.96	5.16
	11~20만원	6.15	7.07	5.73	6.12	5.28	5.87	6.84	6.87	4.88	5.19
	21~50만원	6.46	6.44	6.66	6.41	5.61	5.79	6.97	6.91	5.45	5.38
	51~70만원	5.80	6.71	6.06	6.48	5.78	6.12	7.05	7.13	5.18	5.68
	71~100만원	6.18	6.45	6.24	6.74	5.62	5.65	7.13	7.14	4.75	4.80
	101만원이상	6.50	7.10	7.16	7.06	6.02	6.44	7.27	7.34	5.19	5.58
	F 비	1.25 (392)	2.43** (404)	5.21*** (396)	3.29** (402)	1.74 (391)	1.47 (401)	.56 (387)	1.60 (401)	1.45 (391)	1.48 (402)

*p<.05 **p<.01 ***p<.001

성이 많아져서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 역시 커진다는 보고를 뒷받침 하고 있다(Schumm등, 1986). 그러나,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도 있어(오혜정, 1985), 이 변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이 전업주부일 때가 더 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가정에서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며,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301만원이상이되면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소득이 높아지면 사회활동 등의 사회적 교류가 증대되고 가정보다 사회단체와의 교류가 왕성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어느정도 이상되면, 소득과 만족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때 가족관계에 더 만족하였다.

(3) 경제생활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여성의 취업여부를 제외한 모든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 이는 Rodgerse & Converse(1975)가 생활의 질 영역에 교육의 유용성과 양을 포함 시킨 것과 관련되며, 한경혜(1980)가 가장의 교육수준이 생활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며, 경제복지와 가계소득적정도인시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

(4) 여가생활

여성의 경우,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업주부일때 여가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여가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다는 연구(강신주 등, 1968 ; 민경애, 1985)와 일치한다. 그러나, 취업여성도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가시간확보로 여가생

활에 대한 시간투자와 참여로 만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본인의 직업, 배우자의 취업여부, 가계소득, 그리고 저축액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가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소득이 많은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마련될 수 있으며, 또한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노동력 재생산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만족도 커진다고 본다.

(5) 주거환경

여성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상 안정된 시기(즉 자녀독립기)가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을 수 있는 여유와 자녀의 독립등으로 공간의 여유를 느끼게됨으로 인해 만족이 커지며, 이 시기에 가정생활의 질 만족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 문제가 존재하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주거이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정 선택을 할 것이며, 공간과 설비에 대한 만족은 가계소득과 저축액수와 관련하여 높게 인지할 것이다.

(6) 건 강

남성의 경우만 본인의 직업과 가계저축액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유형 중 사무직과 상공자영업자가 가장 만족하였으며, 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만족도가 낮다. 이는 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육체노동과 저소득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 가사노동환경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설과 작업환경, 보조원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크며, 취업여성보다 전업주부가 가사일을 직접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경우도 직장가 가정의 이중역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사노동 대체의 요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능률화를 위해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설과 적절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유형을 보였으나, 배우자의 취업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8) 교육의 양과 유용성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결혼지속년수가 9~23년일때 가장 만족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주기 중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가 낮은 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교육의 양과 유용성이 높게 나타남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남성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더 만족함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교육의 양과 유용성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점점 취업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 남성 자신의 교육의 양과 유용성에 대한 만족을 보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은 수단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고가 남성들에게 강하게 뿌리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9) 친구 및 이웃관계

여성의 경우는 전업주부일때가 취업한 경우보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과 이에 따른 정서적인 교류의 기회와 양이 많게 되므로 이에 따른 만족이 크다.

남성의 경우, 본인의 직업과 관계되는데, 원만한 대인관계를 필요로 하는 상공자영업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전문직인 경우에 오히려 더 낮는데, 이는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의 기회가 적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10) 지역사회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배우자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가 비전문직인 경우 보다 더 만족하고 있다. 전문직집단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환경과 근린서비스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주거이동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만족역시 큰것으로 본다.

3) 기혼여성과 남성의 가정생활의 질 만족

가정생활의 질 만족은 여성과 남성간에 유의미($P<.05$)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여성의 경우는 식생활에 대한 만족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이는

표 4. 여성과 남성의 가정생활의 질 만족

변 인	여 성		남 성		T 값
	평 균	사 례수	평 균	사 례수	
가정생활의 질만족	60.59	366	62.00	399	-1.68*
1. 식 생활	6.39	418	6.62	431	-2.00*
2. 가족관계	6.91	411	7.02	425	-.87
3. 경제생활	5.75	412	5.79	425	-.33
4. 여가생활	5.42	409	5.49	427	-.51
5. 주거환경	5.86	414	5.87	427	-.06
6. 건 강	6.27	414	6.67	431	-3.01**
7. 가사노동환경	6.18	417	6.33	427	-1.09
8. 교 육	5.52	413	5.81	426	-2.28*
9. 친구·이웃관계	7.01	410	6.93	427	.69
10. 지역사회	5.13	414	5.30	429	-1.39

* $p<.05$ ** $p<.01$

주부로서 영양을 고려한 식단작성과 가계소득을 고려한 식생활비에 대한 분배등으로 식생활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은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이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식생활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에 있어서, 여성은 건강에 민감하고 임신과 출산후의 여러가지 증세, 갱년기 증세등으로 남성보다 덜 만족할 것으로 본다. 특히 여성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주로 가정생활을 담당하는 책임감 때문에 입원하는 기회와 일수가 적어 여성의 보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양과 유용성에 있어서, 여성은 과거보다 교육의 양과 경제활동인구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교육의 양에 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남성의 경우는 주로 식생활 관리를 담당하는 여성보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족할 것이며, 건강에 있어서는 직장등 사회활동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크며, 각종 정기적인 건강진단등으로

건강관리에 대하여 만족하며, 그리고 경제활동참여 비율과 교육의 양이 여성보다 훨씬 많아 남성이 더 많은 만족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만족하는 영역으로는 식생활, 건강, 그리고 교육등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만족한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가정생활의 질 만족이 남성보다 낮은 결과와 관련된 것이며 후속연구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1)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간의 상관관계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우, 가계소득을 적절하게 인지하면 가정경제문제를 덜 경험하며, 특히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와 가계소득의 안정도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r=.64$, 남성의 경우 $r=.68$ 등으로 높은 정적

표 5.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간의 상관관계

1. 가계소득적정도 인지							
2. 가계소득의 안정성	.775** (.785**)						
3. 가계소득의 향상감	.762** (.766**)	.475** (.487**)					
4. 가계소득의 기대감	.670** (.672**)	.297** (.314**)	.523** (.468**)				
5. 가계소득의 상대적 안정성	.727** (.714**)	.565** (.565**)	.309** (.350**)	.295** (.291**)			
6. 생활필수품 구매 정도	.618** (.674**)	.534** (.583**)	.281** (.332**)	.150* (.253**)	.423** (.413**)		
7. 가정경제문제 경험빈도	.615** (.629**)	.641** (.680**)	.348** (.327**)	.223* (.321**)	.504** (.450**)	.568** (.593**)	.1000 (1.000)
평 균(287) (308)	16.22 (15.71)	3.23 (3.11)	3.60 (3.50)	3.63 (3.56)	2.75 (2.63)	2.98 (2.89)	36.05 (35.27)
표준편차	3.45 (3.55)	.79 (.81)	1.16 (1.19)	1.04 (1.06)	1.06 (1.00)	.77 (.83)	8.85 (8.72)
	1	2	3	4	5	6	7

(): 남성 * : $p < .01$ ** : $p < .001$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일 수록 가정경제문제경험을 덜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계소득적정도인지는 가계소득안정성, 향상감, 기대감, 상대적 안정감, 그리고 생활필수품구입 정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소득이 안정적이고, 가계소득이 과거보다 현재에 더 안정적이며, 미래에 대한 가계소득을 현재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기대할 때,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도 저축할 정도가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계소득을 더 적절하게 인지하게 되며 따라서 가정경제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Williams, Nall & Deck, 1976; 임 정, 1988).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가정경제문제경험 빈도의 변수는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비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식생활을 직접 담당하는 주부로서 식생활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으며, 그리고 가족, 친척 및 친구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문제를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현대가정에서 남성 부재의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녀교육이나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한

교제가 주로 여성들에게 맡겨지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져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계획성 있는 가계지출로 가계소득적정도인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교제비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남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므로 교제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또한 여성이 인지하는 교제비에 대한 경험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교제비 지출의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간의 상관관계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6). 즉, 여성과 남성모두,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높을때, 높은 가정생활의 질 만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을 적절히 인지하고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가 낮으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절히 인지한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가지 경제문제의 경험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정경제안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표 6.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간의 상관관계

1. 가정경제안정도 인 지				
2. 가계소득적정도 인 지	.885** (.891**)			
3. 가정경제문제 경험빈도	.915** (.913**)	.620** (.628**)		
4. 가정생활의 질 만족	.643** (.577**)	.547** (.454**)	.608** (.580**)	1.000 (1.000)
평균(260) (287)	72.24 (70.21)	16.33 (15.76)	36.31 (35.54)	60.82 (62.64)
표준편차	14.81 (15.05)	3.47 (3.59)	8.81 (8.78)	11.22 (11.85)
	1	2	3	4

(): 남성 **p<.001

진다.

결과적으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하위변수인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 높은 정적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생활영역으로는 여성의 경우, 주거환경, 식생활, 가사노동환경, 여가생활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가정경제안정도가 높으면 주거시설과 환경, 양질의 식단, 가사작업시설과 환경, 그리고 여가생활참여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에 따라 이들 영역에 대한 만족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가생활은 시간의 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높을수록 이 영역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식생활, 가사노동환경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주소득원인 남성이 본인의 직업을 통하여 획득한 가계소득으로 이들 영역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높은 만족을 인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경제생활에 대해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변수가 가정경제측면이 강조된 두 하위영역인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조합한 변수이므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의 관계를 보기위해서,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대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단순회귀만을 제시하였다. 즉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대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포함시켰다.

여성과 남성 모두, 독립변수에는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조합한 가정경

제안정도인지를, 종속변수로는 10개의 관심영역에 대한 만족을 조합한 가정생활의 질 만족을 회귀식에 넣었다. $SQOLI = b_0 + b_1 FAMECSEC + e$ $b_0 =$ 상수, $e =$ 오차, $SQOLI =$ 가정생활의 질 만족, $FAMECSEC =$ 가정경제안정도인지

단순회귀결과,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41%, 33%의 영향을 미쳐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상의 결과를 볼때,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가정생활의 질 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두 하위영역 중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가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가계소득적정도인지의 높고 낮음보다 가정경제문제의 경험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에 더 예민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계소득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가정경제문제의 경험빈도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위한 가계관리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가계소득,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저축액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이 남성보다 가계소득적정도인지

표 7.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대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의 회귀계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B	R ²
가정생활의 질 만족	가정경제안정도인지	.488*** (.454***)	.643 (.576)	.414 (.332)

() : 남성 ***p<.001

를 높게 하고 있는데, 가계관리를 담당하는 여성보다 주소득원인 남성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열망 또는 기대수준이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가계소득을 덜 적절하게 인지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세째,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에 있어서는 보건·위생비, 공과비, 그리고 예비비 등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가계소득을 덜 적절하게 인지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가계지출비목 중 특히, 예비비는 자녀결혼, 주택확장, 그리고 노후대책마련 등과 관계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예비비에 대한 문제경험을 줄이기 위하여는 가정생활 주기의 시작과 함께 노후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부부는 가계의 공동관리·책임하에 규모있고, 효율적인 가계관리로 가정경제안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네째,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가계소득,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그리고 가계저축액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회인구학적변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가계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저축액 등이다.

여섯째,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어서, 가계소득을 적절히 인지하고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가 낮을때, 가정경제안정도인지도가 높았으며,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 역시 높았다.

일곱째,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식생활, 건강, 그리고 교육영역에 대하여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가사일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보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정생활의 질 만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보다 가정생활 영역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활용,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여덟째,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영향이

켰으며, 특히 여성은 41%로 남성의 33%에 비해 그 영향력이 컸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관적인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고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한 가계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과 남성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한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청된다.

둘째,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생활영역의 가치중요도 순위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1) 김민정(1984). "가계소득적정도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인과모형의 한 시도-".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3)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정선희(1987). "도시 주부의 재정문제 인지정도 와 그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Andrews, F.H. & Withey S.B.(1974). "Developing measure of Perceived Life Quality : Results from several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 1-26.
- 7) Berry, R.E. & Williams F.L.(1985).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Family* 49, 107-

- 116.
- 8)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9) Schram, V.R. & Dunsing M.M.(1986). "Finance domain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 A Path Analysis approach", *Compedium of Quality of Life Research*,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10) Williams, F.L., Nall M. & Deck P.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85-196.